

2. 金融所得 綜合課稅 擴大 實施에 따른 金融 市場의 變化

- (內容) CD(讓渡性預金證書), CP(企業어음), 5년 이하의 만기 채권, 開發信託 등 만기전 양도가 가능한 모든 채권의 중도 환매 이자에 대해 종합과세를 실시함
- (規模) 과세 대상 금액은 CD, CP의 7조 원 규모를 포함 전체적으로 10조 원 내외임
- (反應) 과표 노출을 꺼리는 과세 대상자들의 觀望勢와 정부의 신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金融 市場은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展望) 綜合 課稅의 시행 세척이 만들어지는 95년말부터 거액 자금의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金融所得 綜合課稅 擴大 實施의 長短期 效果>

短期 反應

銀行	證券	保險	短資	債券	不動產	一般 個人
CD 수익률 하락	예탁금 증가	5년 이상 만기 상품 증가	CP 잔액 증가	회사채 수익률 하락	관망	관망

長期 展望

銀行	證券	保險	短資	債券	不動產	一般 個人
CD 시장 위축	성장 지속	5년 이상 만기 상품 수요 증가	CP 시장 위축	장기채 수요 증가	정책 의지에 좌우	장기채, 실물 투자 증가

**채권의 증도 환매
이자도 綜合課稅
대상에 포함**

○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內容

- 政府는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5년 이하의 만기 채권, 개발 신탁 등 만기전 양도가 가능한 모든 債券에 대해 보유자가 이를 만기전에 팔 경우 보유 기간 동안의 이자를 金融所得 綜合課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음
 - 각종 채권의 이자 소득 원천 징수가 滿期日에 이루어지는 것을 악용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CP나 CD를 만기전에 되파는 사례를 막기 위해 파는 시점에서 보유 기간 동안의 이자를 源泉徵收함

**綜合課稅 대상의
규모는 CD, CP
의 경우 약 7조
원, 전체적으로는
10조 원 내외임**

○ 課稅 對象 規模의 推定

- 8월말 현재 CD 발행 잔액 21조 8천억 원 가운데 個人所有分은 38.2%인 8조 3천억 원이며, CP는 발행분 37조 원 중 개인 보유 규모는 16.7%인 6조 원 등으로 CD, CP의 개인 소유분은 모두 14조 3천억 원에 달함
 - 이 금액 중에서 金融所得 綜合課稅 대상 규모는 절반 가량인 7조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 國稅廳이 최근 집계한 금융 기관의 94년 분 예금자 이자소득세 등 원천 징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金融所得이 4천만 원을 넘어 종합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예금자는 3만 1천 명으로 나타났다음
 - 전체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규모는 會社債 및 開發 信託 등을 포함하면 10조 원 내외로 전망됨

**거액 투자자들의
관망세와 정부의
대책에 힘입어
금융 시장은 단기
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金融 市場의 短期 反應

- (會社債) 9월 6일 政府의 채권 종합과세 방침이 발표된 후 급등세를 보였던 회사채 유통 수익률은 9월 16일 13.24%를 頂点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20일에는 12.68%까지 떨어졌음
- (CD) 지난 16일에는 CD 유통 수익률도 13.25%까지

- 올라갔으나, 20일에는 다시 12.95%까지 하락했음
- (銀行) 은행의 특정 金錢 信託은 당초의 급격한 자금 이탈 우려와는 달리 지난 6일 21조 6천 원에서, 18일에는 21조 9천 원으로 3천억 원이나 늘어 났으며, 저축성 예금도 같은 기간 동안 1백 6조 원에서 1백 7조 원으로 1조 원이나 증가했음
 - (證券社) 다만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은 이 기간중 2조 5천억 원에서 2조 8천억 원으로 3천억 원이상 늘어나 매일 4백 ~ 5백억 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다른 金融圈의 자금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같은 證市 流入 資金이 종합 과세를 피하려는 몽칫돈들이라고 보기는 아직 이룸
 - (保險社) 그리고 기존 6개 生保社들은 지난 8월 한달 동안 만기 5년 이상의 상품에 대한 과세 예외로 금융형 상품 판매 실적은 2천 2백억 원에 달해 전월 대비 43.7%나 늘어 났음.
 - 이처럼 金融 市場이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선 몽칫돈들이 마땅한 도피처를 정하지 못해 여전히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當局이 종합과세로 인한 금융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축적인 통화 운용과 채권 발행 물량 조절 방침을 밝힌 것도 시장 안정에 기여했음

내년부터 금융 시장의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金融市場의 長期 展望

- (銀行 및 債券 市場) 정부는 금융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존 節稅 商品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고, 이들 상품의 종합과세 포함 범위를 가급적 최소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정 금전 신탁 상품 등 銀行, 證券, 投信社의 종합과세 회피 상품에 몰려있는 약 1조 1천억 원(8월 말 현재)의 자금이 급격히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거액 투자자들은 금융권을 이탈하여 부동산 등 實物 部門이나, 5년 이상 장기 채권으로

- 옮겨갈 가능성이 높음
- 또 은행들의 주요 자금줄인 CD의 인기가 시들해지면 은행들도 새로운 資金 공급원을 만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高金利 수신 상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큼에 따라 시중 금리 상승을 또 한 차례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CP는 一般 銀行 預金처럼 통장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사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됨. 이에 따라 과표 노출을 꺼리는 자금의 이탈로 인해 기업어음 시장의 위축이 우려됨
 - 債券의 경우 분리 과세가 허용된 5년 이상 長期債의 투자 메리트는 급격히 높아져 채권 시장이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長期債가 발행 물량이 적어 발행이 확대될 때까지는 실질적인 도피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株式 市場) 만기 3개월의 CD를 10월 이후에 사게 되면 이자가 綜合課稅 대상이 되는 만큼 시중 종합과세 회피 자금의 증시 유입은 9월말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 주가 지수의 중장기적 상승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에서 株式 賣渡 資金이 증시 외부로 빠져 나갈 가능성은 적음
 - 따라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고객 예탁금은 3조 5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 수준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場勢에도 호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不動產 등 實物 投資) 거액 자금이 금융 시장을 벗어나 부동산과 같은 實物 部門으로 이동할 경우 금융 시장의 충격이 클 수 있으나, 不動產 투기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퇴색하지 않는 한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박종곤, 천일영)